

# 전통시장 “고마워, 온누리상품권”

## 전남, 지난해 335억 판매...실적 전국 세번째 광주, 회수율 224%로 전년보다 1.7배 급증

지난해 전남지역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이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광주의 경우 판매실적은 6대 광역

(청장 이외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은 334억9100만원 어치로 전년 281억 1800만원보다 19.1% 증가했다. 이는 경기(1351억4000만원), 서울(898억44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대량구매하는 기업들이 서울·경기 지역에 분사를 두고 있어 이들 지역의 판매실적이 높

게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전남지역의 판매실적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주는 51억9700만원으로 충북(45억1800만원), 제주(37억3100만원)와 함께 판매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해당했다. 연도별 판매액과 상품권 회수율은 광주·전남 모두 크게 증가했다. 광주는 2009년 3억6700만원에 불

과했던 판매액이 지난해 51억9700만원으로 14배나 급증했고 전남도 2009년 2억1800만원에서 2010년 116억1200만원, 2011년 281억1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16억6000만원이 회수돼 224%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회수율(127%)보다 1.7배나 급증했다. 광주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높은 것은 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이 광주지역에서 사용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사는 자녀가 광주 부모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선물한 것

로 보인다. 또 회수율이 몇년 사이 급증한 것도 그만큼 전통시장 이용이 늘었다는 의미다. 온누리상품권은 1만원권과 5000원권이 있으며, 광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맹시장은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하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이외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한층 위축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



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세뱃돈 신권으로 준비하세요. 설을 열흘 앞두고 롯데백화점 광주점 상품권판매소에서 신권교환 서비스를 6일까지 진행한다.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교환해주며 권종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까지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대부업체 5년새 절반 ‘뚝’

### 상당수 사채시장 편입

최근 5년 동안 등록 대부업체 수가 ‘반토막’ 났다. 폐업한 대부업체의 상당수는 사채시장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전업 대부업체 8010개와 겸업 대부업체 1160개를 합쳐서 모두 9170개다. 2007년 말 1만8500개의 49.6%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대부업체가 매월 156개꼴로 시장에서 퇴출당한 결과다. 이들 대부업체의 상당수는 사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들어가 불법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 요구와 과세 등 여

러 규제·제약 때문에 상당수 대부업체가 아예 영업을 그만두거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형 대부업체들도 수익이 대폭 감소했다. 일부 업체는 영업반경을 넓히고자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총자산이 전년보다 27% 가량 줄어든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러시앤캐시의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연결기준 총자산은 1조6673억원으로 전년 2조2777억원보다 26.8%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한은 금감원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 31사단 위문 1000만원 전달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은 지난 31일 지역 향토부대인 보병 제31사단(사단장 박병기)을 방문 추운 날씨에도 지역민의 안전과 나로호 성공 발사를 위해 수고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대기업 외식사업 신규진출 금지

### 동반성장위 출점거리 제한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에는 출점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제과·제빵과 외식업 분야 실무위원회를 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성조사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외식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사업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 전개를

아예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포함 30여개다. 한 관계자는 “외식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부분은 외식업중앙회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동반위도 동조하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반위는 대신 골목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일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규모 상권에 한정해 신규 출점을

허용하면 대부분 직영인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는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애초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와 역사별 논란을 고려해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규제의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의가 애매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 포함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별도로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동종 업종이 일정 거리 이내에 영업중이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동반위는 이날 동네빵집 변경 500m 이내에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 새얼굴

## “보증공급액 70% 상반기 지원”

### 노용훈 신보 호남영업본부장

“중소·창업기업 지원강화로 실무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31일 취임한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신임 노용훈 본부장(53)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 총량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중 연간 보증공급액의 70% 이상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녹색기술,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지원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본부장은 장흥출신으로 장흥고,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신용보증기금 입사 후 목포지점장, 광주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



## 제2금융권도 보증제 연내 폐지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연내 보증을 연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금융권의 연내 보증 폐지를 지지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는 기존 연내 보증 제도를 연내에 점차 축소하거나 없애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에 주력해 연내 보증 폐해를 막기로 했다. 신탁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고객 대부분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4~7등급이라 연내 보증을 당장 없애기는 어려워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신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의 80% 이상이 담보 대출이다. 연내보증 규모는 2조~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단위농협은 신규 대출 때 연내보증을 없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연내 보증을 없앴다. 신탁과 새마을금고 등

이 단계적 폐지를 스스로 검토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연내보증 폐지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연내보증 형식이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기업대출 시 ‘비보호대상 보증’을 하는데 이를 연말까지 점차 없앨 방침이다. ‘비보호대상 보증’은 기업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바지 사장’에 불과하면 사주를 연내 보증으로 세운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는 ‘대환론’이란 형태의 연내 보증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대환론’은 채무가 많은 고객이 한 번에 상환할 수가 없어 36개월 등으로 나눠 낼 때 연내 보증을 세운다. /연합뉴스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 광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